

주요 보험사 CEO 임기만료 코앞 세대교체 바람에 연임 ‘불투명’

김기환 KB손보 사장 올해 만료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내년 3월

좋은실적에 연임 가능성 높지만
분위기 쇄신 흐름에 교체 예상도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도 예외가 아닌 ‘세대교체’ 바람 속에서 경영성과를 인정 받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 CEO의 임기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중으로 만료된다. 양사 CEO 모두 취임 후 탁월한 경영 실적을 보여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지주의 세대교체 의지 등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임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사장은 취임 후 경영 성과들로 미뤄 볼 때 연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021년 3월 취임해 첫째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 KB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이익(5577억원)을 냈다. 성과를 인정 받은 김 사장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임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올해도 KB손해보험은 상반기 5252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좋은 실적을 거뒀다. KB금융그룹 계열사 중에는 KB국민은행 다음으로 많은 순이익규모다.

하지만 내년 1월 양종희 신임 KB금융지주 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계열사 대표 대부분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경우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김 사장은 1963년생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삼성화재 대표로 선임된 홍원학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홍 대표는 삼성생명 부사장을 거친 후 삼성화재 CEO에 선임된 정통 ‘보험맨’이다. 취임 후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만큼 실적으로는 연임 가능성을 의심 받지 않는다.

2022년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1

조1410억원으로 홍 대표 선임 전(2020년·7660억원) 대비 약 3750억원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1조2166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증명했다.

정통 보험맨임에도 홍 대표 연임의 장애물은 역시 삼성금융그룹의 세대교체 의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계열사 CEO 교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64년생인 홍 대표의 경우 60대에 접어드는 만큼 세대교체 대상자로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실적 자체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다만, 분위기 쇄신 흐름이 있다면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임기간 거둔 실적은 연임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다”며 “실적 자체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그룹 등 외부 시각에서는 세대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감안하면 연임이 가능하겠지만 혁신과 쇄신에 방점을 찍는다면 교체 흐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K오션플랜트, FPSO 선체 호주에 인도

7.8만t 규모… 바로사 필드에 설치

SK오션플랜트는 호주 바로사 지역에서 설치되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선체(Hull) 1척을 고객사에 인도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FPSO는 길이 359m, 폭 64m, 높이 31.5m, 총중량 7만8000t 규모다. BW오프쇼어(BW Offshore)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호주 바로사 필드에 설치될 예정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1년 4월 3477억 원 규모의 선체(Hull)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년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마쳤다. 특히 이번 FPSO 제작을 통해 우수한 공사 운영 능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SK오션플랜트는 적기 인도를 위해 선체 블록을 육상 도크에서 탑재하는 방식이 아닌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위에서 바로 탑재하는 방법을 확



경남 고성군 소재 SK오션플랜트 생산지에서서 호주 바로사 FPSO 선체(Hull)가 출항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용했다. 공장 부지를 FPSO 맞춤형으로 구성해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구성해 효율을 높인 점도 주요했다.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해양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

해외여행 열기에 운수업 승인금액 31% ↑

여신금융협 ‘3분기 카드승인금액’ 운수업, 전년대비 1조1200억 증가
숙박·음식점업은 1조3790억 늘어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여행 열기가 식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운수업 부문 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조1200억원 증가했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올 3분기 운수업의 카드승인금액은 4조7300억원이다. 지난해(3조6100억원) 동기 대비 30.9%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도 12.3% 증가한 수치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청소 ▲방제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카드승인금액은 39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790억원 상승했다. 국내외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 등 해외여행 정상화 추세에 힘입어 관련 업종 매출이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분기 전체카드승인금액은 29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2.4% 올랐다. 이어 승인건수는 71억8000만건으로 6% 증가했다. 이중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41조8000억원이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0조7000억원이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년새 6.1% 오른 반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 감소했다.

/김정산 기자

한은 긴축기조에 2금융권 차주들 울상

시장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
저신용 차주 대출 축소 불가피
카드업계, 여전채 금리 주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2금융권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한 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당분간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美)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 또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영끌족을 향해 “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 작다”며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과 반대로 시장금리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 및 자영업자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업권이 하나 둘 영업을 중단하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연 20%)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불법사금융 이용률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에서는 조달비용 증가폭에 따라 저신용 차주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내비치면서 2금융권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접어들면서 기업어음(CB) 등의 1년 미만 단기채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유동성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여전채(AA+, 3년물) 금리상단은 연 4.89%였다. 여전채 금리가 연 4.8%를 초과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여전채 진정 전망은 어둡다. 최근 은행권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여전채를 향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4분기를 시작으로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오는 12월까지 은행채 대비 비우량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1일 “올해까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채권이 쏟아지

면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3~4개월 후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금리가 일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카드사가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3~4개월 전 융통하기 때문이다. 4개월전인 6월 여전채 금리는 0.2%p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실제로 이달 국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의 평균 금리는 연 18.54%다. 지난 9월(연 18.47%) 대비 0.07%p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카드론 금리는 0.1%p 떨어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협약

생보·손보·핀테크社 협약식 개최
각 회원사 대표 협의체 구성·운영

22개 생명보험사, 18개 손해보험사, 11개 핀테크사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운영한다.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해 주고, 소비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협약식은 생보사·손보사·핀테크사가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협력 사항 등을 상호 약속하는 자리다.

협약에 따라 보험사 및 핀테크사는

상호 적극 협력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2024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을 주최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통해 표준 API 명세서 등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의 준비 및 운영 관련 협의, 협약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회원사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생보·손보·핀테크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방식의 보험서비스를 확보할 것”이라며 “핀테크사는 보험상품 취급 등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